



강의 엿보기

신입생 세미나

## 정운찬 총장의 ‘나와 경제학’

김신애 (기초교육원 연구조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개강일...** 현재 총장직을 맡고 있는 66학번의 경제학 전공 교수와 각기 전공이 다른 05학번 학부 신입생 15명이 둘러앉은 원탁은 조금 머쓱하다. 40여 년의 격세를 두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담당교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39년 후배예요. 39년 후배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 떨리기는 합니다.’ 라는 말로 담백하게 첫 강의를 열었다. 강의연구차 ‘담당교수의 허락 하에’ 참석한 나는 이 분위기의 의미를 짐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서로가 지내온 시간과 경험의 거리는 너무나도 먼 데 비해서 물리적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편함.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 간의 이러한 거리감은 몇찍은 분위기를 풀기 위한 훌륭한 농담 몇 마디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며, 미숙한 자가 시간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된 후애나 얻을 수 있는 공감으로만 해소가 가능하다. 물론 학문의 세계에서 선진과 후진간의 이러한 거리감을 해소하려는 것이 대학 교육의 존재이유이며, 이를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것이 신입생 세미나에 주어진 과제일 터이다.

이렇게 신입생 세미나는 대형 강의의 익명성이 주는 서로의 인격에 대한 방어막이 해제된 채로 교수와 학생이 가까이 마주앉아 한편에서는 이미 지나온 과거의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어 알려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자기 자신을 모색하는 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와 경제학’은 이러한 과제가 심분 이해되었음을 보여주는 강의명이다. 대형 강의가 아닌 만큼 표준화된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을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수의 학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그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주된 테제로서의 경제학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안내하고 싶어 하는 세미나의 의도가 엿보인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2동 306호에서 진행되었다. 항상 세미나 시작시간보다 5분 먼저 오고 5분 늦게 나가는 담당교수의 ‘치밀함’과 ‘성실함’으로 인해 지각하는 학생이나 결석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세미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개강 전에 이메일 형식의 인터뷰를 거쳤고,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수강동기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므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각별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미나의 교재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집인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조금씩 읽어가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업적 및 생활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Paul A. Samuelson),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케네스 애로우(Kenneth J. Arrow), 아더 루이스(Arthur Lewis)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명량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이들의 공적인 업적도 업적이지만, 담당교수 개인이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가까이에서 접했던 사적인 경험과 느낌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들었던 아더 루이스 교수에 관한 이야기,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만의 뉴스위크 칼럼전쟁 등이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되는 동시에 수리경제와 계량경제의 차이점, 경제학에서의 미시적 사고와 거시적 사고의 차이점 등이 쉽지만 진지하게 설명되었다. 학생들은 교수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은 어떻게 달라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의 비록 신입생의 수준에서지만 학문적 관심이 묻어나는 질문들을 수시로 던질 수 있었다. 또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개의치 말고 내용이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소선택 읽듯이 그냥 읽어보라.’라고도 거듭 당부하였다.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노벨상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들의 이론이 가지는 경제학적 의의도 이유가 될 것이나, 그보다 깊은 곳에는 ‘여러분들도 사실상 잠정적인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는 사실의 암묵적 시사와 대학 신입생들이 수강생들이 위대한 학자들의 삶의 여정에 묻어나는 여러 사례들을 자신도 한 번 ‘해 볼만한 것’으로 여기고 보다 큰 삶의 조망 안에서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들어있을 것이다.

담당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현재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책을 뭔지도 모르고 배우는 것이 나중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중에 제 나이가 되어 그 책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때, ‘이거 학부 때 읽어봤던 책인데’라는 익숙함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담당교수 본인도 학부 2학년 때 스승인 전 서울대 교수 조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반이론』을 읽자고 해서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경험이 훗날 미국에서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학생들에게는 『경제성장(The Economic Growth)』의 저자로서의 아더 루이스보다는 교수님이 젊었을 때 유학 가서 강의를 듣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서평을 쓰기도 했던



아더 루이스로, 또 열역학적 아이디어를 경제학에 도입하고 『경제원론(Economics)』을 저술했던 새뮤얼슨보다는 ‘잘난 척은 대단히 하지만 경제학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 위대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담당교수의 존평 속의 새뮤얼슨이 더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 어느 학생은 몇 년 뒤에 아더 루이스의 『경제성장(The Economic Growth)』이나 새뮤얼슨의 『경제원론(Economics)』을 읽으면서 신입생 세미나에서 교수가 들려주었던 일화에 대한 기억을 보조적으로 떠올리면서 경제학을 훨씬 풍부하게 음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나와 경제학’의 또 다른 한 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와 진로지도가 되었다. 세미나는 학생들을 경제학적 사고와 이론에 초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예를 들면 담당교수는 ‘나는 정말 어렵게 공부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어려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항상 발전밖에 없었지...’라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학생들은 ‘미팅’에 얽힌 이야기부터 자신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 유학을 가야 하는지 학교에 남아야 하는지 등의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또 담당교수가 총장이라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가 매번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학교도서관 좌석을 더 확보 해 주세요’, ‘본관 앞 잔디는 총장님만 사용하는 총장잔디인가요?’, ‘등록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에 이르기까지 서슴없는 질문과 답이 오고갔다.



서로의 생활을 교류하는 데에 있어서도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덕분에 한 대학의 총장이자 강의를 담당한 교수는 39년이나 어린 대학신입생 후배들 앞에서 소박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담당교수는 젊을 때 한국과 한국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캐나다 출신의 스코필드(Frank W. Scofield)박사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면서, 스스로도 신입생 세미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후원인이 되고자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총장님’과 함께 야구관람을 하고 종강파티로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저녁식사를 하는 등의 친밀한 경험을 하고 경제학 및 학교생활, 국내외 이슈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전공이 아닌 경제학적 사고를 가볍게라도 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학내 선배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님’의 생각을 접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적지 않은 갈등도 겪었을 것이다. 또한 담당교수의 39년이나 더 오랜 경력과 앞선 학문적 성취의 아득함이나 학생과 총장의 입장 차이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지식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고, 까마득한 선배 학자들의 열정과 엄격함을 배우며 진로를 상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깊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얻었으리라 믿는다.